

## 4/27(수) 에스더 묵상 2

에스더 1:10-2:2

**말씀 읽기와 묵상** -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

제국의 영광을 자랑하고 흥청망청 오랜 잔치를 벌인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운 외모를 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고자 합니다. 하지만 그 일이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자 불같이 화가 나서 왕후를 폐위시키게 됩니다.

### 왕후 와스디

아하수에로왕이 잔치 중에 왕후 와스디의 외모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습니다(10절, **“제칠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므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”**). 이는 잔치 마지막 날로서 주흥이란 ‘술로 인해 기분이 좋았다’는 뜻입니다. 아하수에로가 베푼 지난 6개월간의 잔치에서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. 하지만 일반 백성들을 위해 연회를 베푼 마지막 날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. 비록 당시 왕과 방백들 그리고 왕후에게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이 시작된 날입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일도 우연은 없기 때문입니다. 한편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거절하게 됩니다(12절, **“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하더라”**). 당시 한 제국의 아하수에로와 같은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곧 신의 말을 거절한다는 의미였습니다. 하지만 와스디도 왕비로서 제국의 화려한 부귀와 명예 그리고 흥청망청한 오랜 잔치 속에서 분별력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. 와스디의 거절에 아하수에로 왕은 몹시 분노하게 됩니다.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 마지막 날 취중 분노한 상태 속에서 간신들의 조언에 따라 이성을 잃은 채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(19절, **“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경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”**).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도 연회 중에 술에 흠뻑 취한 채로 하나님의 성전 그릇으로 술잔을 삼는 중한 범주를 저지르게 됩니다(단 5:1-4). 또 헤롯은 취중 상태에서 연회객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레 요한의 목을 베게 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(막 6:21-28). 또 사울왕과 빌라도는 비록 취중은 아니었지만 백성들의 민심과 요구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.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무모간의 조언으로 인해 그것을 좋게 여기고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게 됩니다(21절, **“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모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”**). 결국 아하수에로 왕의 술자리에서 벌어진 추태는 한 나라의 왕비를 폐위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게 합니다.

### 하나님의 섭리

본문 2장 1절은 ‘그 후에’라는 말로 시작합니다(1절, **“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매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”**). 이것은 와스디가 폐위되고 금방 이루어진 일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학자들은 이때가 그 후에 일어난 그리스와의 전쟁으로 벌어진 약 3-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으로 추정합니다. 역사에 따르면 아하수에로는 B.C. 480년경에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티아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에게 패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 우울한 상황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과거를 회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. 이 때는 아무래도

전쟁에서도 패배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은 홀로 더 큰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. 이 시점에서 왕의 측근 신하들은 왕에게 공석인 왕후의 자리를 채워줄 왕비를 구할 것을 조언하게 됩니다(2:2, “**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**”). 그리고 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 후손들이 여전히 유배지에 남아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 자리에 결국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당시 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신이 그 어떤 왕과 권력자들보다 더 크고 강하며 위대한 분이신 것을 유다 백성들을 통해 드러내시게 됩니다. 마치 바벨론 제국 속에서 다니엘과 세친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위대함을 나타내시고 바벨론 왕의 입을 통해 드러내신 것처럼 말입니다(단 4:34, “**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.**”).

오늘 본문을 묵상한 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그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시는 분이십니다. 사실 에스더서는 구약성경 정경 채택의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성경 말씀입니다. 그 이유는 이 본문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한번도 등장하지 않고 여주인공인 에스더가 이방인과 혼인하는 등 율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에스더서는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그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역사의 주권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또 그의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는 섭리와 그것을 믿고 완전히 신뢰하는 신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또 에스더서가 구약 성경 전체와 통일성을 이루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자 했던 원수 하만이 아각 사람이었습니다(3:1, “**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..**”). 아각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울이 진멸하지 않은 아말렉 족속을 말합니다(삼상 15:8-9, “**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 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.**”). 이 때 사울은 하나님의 명을 어김으로써 결정적으로 주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(삼상 15:11, “**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.**”). 에스더서는 사울 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손에서 그의 백성을 끝내 지켜주심으로써 반전의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. 왕후 에스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 모든 일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실책을 통해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 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. 이처럼 에스더서는 다른 어떤 성경 말씀보다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작정과 섭리를 보여주시는 위대한 말씀입니다.

**적용 -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?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.**

#### **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**

1. **적용의 기도:**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.
2. **북한을 위한 기도:** 북한 땅에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. 북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소서.
3. **교회를 위한 기도:** 우리 교회에 속한 선교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.
4. **선교사님을 위한 기도:** 인도네시아 하영광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.